

■ 그림 여행



봄 (Spring c. 1881)

에두아르 마네 (Édouard Manet 1832 - 1883)
 캔버스에 유채 74 cm x 51.5 cm 풀 게티 미술관

아직도 밤바람이 매섭던 3월 초 어느 날, 바람
 곁에 실려 오는 재스민 향기를 맡았다. 코 끝에 언
 뜻 스치는 정도였던 그 향기가 하루 온종일 공기
 속에 떠다니게 된 지가 이제 한참 되었다. 겨우내
 앙상하던 나뭇가지들에는 연한 초록빛 싹이 피

어 오르더니 나무들이 싱싱한 잎새로 풍성해져
 간다. 봄기운이 완연하다.

그림 속에도 봄이 만개했다. 파란 하늘을 이고
 있는 녹색 정원에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
 인이 파라솔을 들고 서 있다. 레이스가 출렁이는
 그녀의 파라솔, 머리에 쓴 보네, 그녀의 하얀 드레
 스, 그녀 뒤 나무들 위에 꽃이 만발해 그림 전체가
 한 떨기 봄꽃이다.

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는 이토록 봄 소식이
 생생한 그림을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렸다. 병
 들었고 고통에 신음하던 시기였다. 어두운 시간
 이었지만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들은
 꽃이 만발한 정물화, 밝고 힘찬 초상화 등 생명력
 과 환희가 넘치는 그림들이다.

'봄'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'잔느' 라고 불리
 기도 한다. 친구 앙토낭 푸르스트의 제의로 그리
 게 된 연작의 첫째 그림이었다. 푸르스트는 마네
 에게 당시 파리의 멋쟁이 여인 4명을 모델로 4 계
 절을 묘사하는 연작을 그려보라고 제의했다. 그
 들의 패션과 미모를 통해 당대 파리 여인들의 현
 대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라는 취지였다.

마네는 유명 배우 잔느 드마르시를 모델 삼아 '봄'
 을 그리고 다음해 다른 모델을 기용해 '가을'
 을 그린 후 연작을 완성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.
 세상을 떠난 때가 4월이라 여름과 겨울을 더 이
 상 보지 못했다. 그렇게 떠나리라 예상했던 것일
 까? 남은 생의 숨결을 다 쏟아 부은 듯한 이 녹색
 그림 속에 그가 남기고 간 봄이 청명하게 빛난다.

김 동백

OCEYELASH

비밀의기술 오롯한 퀄리티의
속눈썹 연장 서비스



Special Offer

첫 방문시

"OCeyelash town news" 를
 언급해 주시면 **\$20 할인혜택**
 해드리겠습니다.

Expire date April 2023

<수강생 모집>

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인 수업,
 프라이빗 일대일 수강생 모집 중
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,
 재수강 이제는 당신의 성장할 기회!

- 한올 한올 정확한 1:1 시술 •
- 100% 고급 재료 사용 •
- 모근 보호시술로 건강한 속눈썹 •

상담 및 예약

714.948.0006

4128 w commonwealth ave.
 #203, Fullerton CA 92833



방 하나만! 구들온돌로 바꿔보세요
삶의 질이 달라집니다

goodleusa.com

310.650.9638